



박의장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공공재...한중 협력하자"

기사입력 2020-12-21 18:45

| 中 리잔수와 화상회담...리잔수 "양국, 국제방역협력 모범"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 회담에서 발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화상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세계 각국이 공평한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체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통해 지역주의를 넘어선 개방적 국제주의, 다자주의를 주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리 위원장의 공식 방한을 요청하면서 "내년에는 양국 국회의장이 서로 방문해 양국 간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중국을 직접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매서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양국은 서로 지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은 가장 먼저 서로에게 방역 자원을 제공했고 가장 먼저 합동방역협력을 전개했으며 가장 먼저 인적교류를 위한 신속 통로를 개설, 국제 방역 협력을 위해 모범을 세웠고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새로운 예시를 추가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강화를 당부하며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거리두기 3단계' 우려에 사재기?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94352>
